

濟州 流配文學 序說

梁 淳 玟

I

濟州島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른바 絕海孤島이다. 濟州島는 지난 날 李朝時代만 해도 最高刑을 받은 流刑囚들이 流配은 最惡의 流刑地였다. 그것은 流配者들을 다룰 때, 遠惡地配보다 島配를 더 重罪人視했던 점에서도 쉬 理解가 될 것이다.

濟州島는 高麗 때 元에 占領된 후 元, 明 등 百餘年間 異族의 流刑地였던 사실이 있다. 高麗 忠烈王元年(1275) 4월에 元나라가 盜賊 百餘名을, 忠肅王 9年(1322) 5월에 徽政院使 新源을, 忠惠王 後元年(1340) 2월에 李蘭愛大王을 濟州島에 流配시켰고 禔王 8年(1382) 7월에 明나라가 雲南을 平定하고 그 곳 梁王 家族 伯伯太子와 그 子 六十奴를, 恭讓王 4年(1393) 3월에 前元나라 梁王 子孫 愛額帖木兒 등을 安置시켰던 바가 있고 한편 禔王 14年(1388) 12月 明나라는 前元의 歸順王族 達達親王 등 80餘戶를 濟州에 居住시키기 위하여 高麗에 요청하였으므로 朝廷에서는 典理判書 李希椿을 보내어 新舊家屋과 房 85所를 修葺하였던 바가 바로 그것이다.¹⁾ 이렇게 異族의 流刑地였던 濟州島가 李朝時代에 와서 島配地로서 定着하는데 한 때는 李朝 成宗 때 盜犯者를 濟州에 定役流配하였던 바 牛馬盜殺과 馬賊事件이 頻發하였으므로 盜犯者의 濟州 流配를 禁止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濟州島는 流配地로서 象徴的이며 代表的 地域이 되어 왔었다.²⁾

1) 金錫翼「耽羅紀年」“忠烈王元年夏四月元流賊百餘人來”(p. 16)

“忠肅王九年五月元流徽政院使新源干玆”(p. 21) “忠惠王後元年春二月元流李大蘭奚王于玆”(p. 22) “王禔八年秋七月明帝平定雲南發遣梁王家屬安置于此”(p. 30) “恭讓王四年春三月明帝置前元梁王子孫愛額帖木兒等于本國(31) “王禔十四年冬十二月朝廷遣典理判書李希椿來修葺新舊房舍八十五所以居前元歸順達達親王等八十餘戶從明帝旨也(p. 30)

2) 筆者가 「韓國人名大辭典」에서 李朝時代의 人名 중 700名을 對象으로 하여 李朝時代의 流配地 및 流配者數를 調査 分析해 본 結果, 李朝時代의 流配地는 國內 245個處로 나타났고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流配地인 濟州의 한 地域에 流配된 數가 34名으로 가장 많고 이를 根據로 하여 濟州는 流配地로서의 代表地域임을 確言할 수 있겠다. (高麗大碩士論文, 李朝流配文學研究, pp. 60-64參照)

2 는 문 집

李朝時代에 濟州島에 流配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王族, 政治人과 官吏와 學者들을 위시하여 아래로 京中の 범죄자와 北方 國境地方의 越境犯에 이르기까지 각종 각양의 “罪目을 범죄하였던 사람들이며 그 數에 있어서도 또한 많았던 것이다.

燕山君 때의 金舜孫, 洪裕孫, 中宗 때의 金淨, 李世蕃, 宋麟壽, 明宗 때의 僧普雨, 宣祖 때의 蘇德裕, 光海君 때의 光山府夫人盧氏와 鄭蘊, 宋象仁, 李溟, 李健, 廢主 光海君, 仁祖 때의 金尙憲, 仁城君, 孝宗 때의 申命基, 肅宗 때 宋時烈, 張希載, 金鎮龜, 金春澤, 景宗 때의 申鉞, 英祖 때의 恩彥君, 恩信君, 任徵夏, 趙觀彬, 李存中, 權震應, 任觀周, 趙貞喆, 李眞儒, 尹塾, 憲宗 때의 金正喜, 哲宗 때의 崔益鉉, 高宗 때의 朴泳孝 등 當代的 王族 政治人 學者들의 流配者를 例舉키 어려울 정도로 그 數가 많다.

李朝 五百年史는 한마디로 黨爭史였다고 結論 지을 수 있을 정도로 李朝 519년의 歷史中 340年間に 걸쳐 黨爭이 點綴되었다. 상당한 流配文學은 바로 이 李朝時代의 政治的 時代的 狀況의 主潮인 黨爭의 所産이요 그 反映이었다.

流配文學이란 流刑囚가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의 事實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情神의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作品을 流配文學이라 그 概念을 規定할 수 있다.³⁾ 이에 濟州流配文學은 李朝時代의 政治的, 時代的 狀況인 黨爭에 直面하여 敗北한

3) 從來 流配文學을 定義한 것을 考察해 보면,

첫째, 君主에게 流配를 받아 生活條件이 險惡한 僻地나 落島에 流配되어 配所에서 春風秋雨 그들의 心情을 노래한 作品. 徐東鈇「流配文學考」(文湖創刊號), p.18.

둘째, 流配의 體驗과 또는 그것을 素材로 한 모든 作品…〈中略〉…그러나 아무리 謫所에서 創作한 作品이라 하더라도 그 作品의 素材든가 또는 主題가 流配를 〈모티브〉로 한 것이어야 流配文學이 될 것이다. 張德順「流配歌辭試考」(國文學通論), p.361.

셋째, 流配를 당한 사람이 謫所에서 直接 보고 느끼고 당한 사실을, 또는 스스로 想像하고 假想해 본 虛構를 文藝的으로 作品化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流配 그것을 題材로 하여 第三者가 想像과 推理로 流配의 情況을 藝術的으로 그려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前者의 것을 直接的인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다면 後者の 것을 間接的인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丁益燮「流配文學小攷」(无涯 梁柱東博士 華誕紀念 論文集), p.531.

넷째, 流刑囚 自身이 黨論이 熾烈할 때 仕官하는 몸으로 自身이 저지른 犯罪 또는 謀略과 事實無根의 참소에 의해 不運의 流配를 당하여 自己 故鄉과 華麗한 벼슬살이밖에 모르던 處地에서 꿈에도 想像 못해본 絕島나 혹은 邊境으로 옮기어 辭念, 思索의 時間을 통해서 人生과 自然을 眞摯하게 觀照해 보기도 하고 異國의 情緒·懷鄉의 情, 他鄉의 自然과 風習 見聞 등을 素材로 하여 謫客만이 지니고 있는 獨特한 心理와 情緒가 加味되어 이루어진 것과 또는 陪行者 自身의 作인 것처럼 戀君의 衷情, 故國의 懷抱, 親族에의 戀慕의 情을 寫實的으로 描寫한 作品, 文瑋植「流配歌辭의 內容의 考察」(全南大語文論集), p.203.

다섯째, 黨爭이 熾烈한 時期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巨海의 風波는 높아…〈中略〉… 政客 或은 學者들은 대개가 귀양을 가서 工夫를 하였고 配所에서 文學을 일삼아 여기에 이른바 配所文學이 成立될 수 있었던 것이다. 趙濟濟「國文學에서 본 生活觀」(國文學概說), pp.336-367.

者가 政敵에게는 물론 君主에게 忌諱 排斥당해 流刑囚로서 濟州島라는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의 事實의 直接 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作品을 濟州流配文學이라 그 概念을 規定할 수 있다.

李朝流配文學에 나타난 內容은 身上歎, 戀君, 哀訴, 忠念, 隱遁逃避, 慨世, 自然愛, 警世, 聖恩, 懷古, 人倫의 順으로 나타났는데⁴⁾ 本稿에서는 濟州流配文學의 主流的 內容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國文學史의 位置를 設定해 봄이 本研究序說의 意圖다.

그 資料는 流配歌辭(肅宗時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英祖時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正祖時? 安肇煥의 萬言詞, 萬言詞答) 4篇과 流配漢詩(中宗時 金淨의 絕命詩, 仁祖時 光海君의 在園籬中吟, 英祖時 任觀周의 磨崖詩 2篇, 憲宗時 金正喜의 配所輓妻喪) 5篇과 流配祭文(英祖時 尹塾의 貞敬夫人 延安李氏 祭文, 憲宗時 金正喜의 夫人 禮安李氏哀逝文) 2篇, 流配時調(肅宗時 宋時烈的 時調 2首, 肅宗時 柳赫然的 時調 1首) 3首, 流配漢文隨筆(中宗時 金淨의 濟州風土) 錄, 仁祖時 李健의 濟州風土記) 2篇, 流配書翰(憲宗時 金正喜의 한글書翰 5통, 漢文書翰 22통 27통 都合 43篇의 作品을 對象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II

1. 流配歌辭

1)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1) 作家考

金春澤은 顯宗과 肅宗(1670~1717) 때의 사람으로 文人이다. 그의 字는 佰雨 號는 北軒, 本貫은 光山이다. 光城府院君 萬基의 孫子요 國文學의 大家인 萬重의 從孫이며 行戶曹判書 鎮龜의 아들이요 肅宗의 첫 王妃 仁敬王后의 조카다.

肅宗15年 5月 (1689)에 仁顯王后 閔氏를 廢位하고 南人이 세력을 잡게 되자 이에 따라 金春澤의 집도 극심하게 影響을 입어 父親이 濟州에 流配당하고 그도 여러번 流配 또는 投獄되었다.

同20年 (1694) 甲戌獄事로 南人이 失脚하자 放釋되어 나왔으나 西人이 老·少論으로 對立 分裂하자 老論에 속하여 同23年 (1697)에 少論의 彈劾으로 流配, 同27年 (1701) 巫蠱의 獄事로

4) 拙稿「李朝流配文學研究」(高大碩論), 69年 11月 29日, p. 260.

4 는 문 집

扶安에 流配, 同32年(1766)世子景宗을 謀害하려 했다는 誣告를 받고 加重罪로 濟州에 流配당하여 先親이 謫居하던 嘉樂川邊의 吳眞의 집에서 定配生活을 하였다.

同33年 8月 朴義良의 모함으로 9月 서울로 押送되어 推問 끝에 다시 濟州로 流配, 同36年 6月 閔鎮厚의 상소로 減刑되어 臨陂로 移配 後 釋放되어 그 후도 同40年 謀略者의 凶計로 流配되었다. 곧 5차에 걸쳐 流配당하고 3차나 獄苦를 치루니 斥逐流離로 무려 30년을 一日一刻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憂時戀君의 衷情은 매우 지극하여 평상시에도 말하되 張希載는 臣下로서 마땅히 治罪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南九萬도 希載와 同類라고 하여 痛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南人을 李爾瞻의 무리와 비교하여 통렬히 詰責한 바 있다.

그는 특히 詞藻의 才가 능하였으며 그의 著書 <北軒集>, <四海錄>에 濟州流配時의 隨想記가 있고 國文學의 大家인 西浦 金萬重의 小說 <九雲夢>과 <謝氏南征記>를 漢譯하기도 하였다. 死後에 吏曹判書에 追贈되고 諡號는 文忠이다.

(2) 作品考

<別思美人曲>은 金春澤의 巫蠱의 獄事後 世子景宗 謀害의 誣告로 인해 流配당하여 流配地 濟州島에서 創作한 流配歌辭이다. <別思美人曲>은 그 作品의 構成과 感情的 表現이 鄭松江의 <續美人曲>과 흡사한 점이 있어 注目할 만하다. 이것은 松江의 <前後思美人曲>을 模型으로 하여 創作한 것 같다. 그만큼 <前後思美人曲>이 人口에 膾炙되었다는 例證도 될 것이다.

吾家西浦翁 管手寫兩詞 於一冊書 其目曰諺經 餘來濟州 又以諺 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 兩詞 其辭 比松翁益婉 其調 比松翁益苦⁵⁾

곧 濟州에서 <別思美人曲>을 創作했고 <追和松江兩詞>라는 代目이 보여준 것처럼 松江의 技倆을 많이 벌린 것으로 충분히 짐작케 한다.

抒情的 歌辭의 代表인 鄭松江의 <續美人曲>의 構成形式은 全篇이 甲女乙女の 和答하는 形式으로 構成돼 있는데 北軒의 <別思美人曲>의 경우도 그와 같은 形式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形式은 78節로 156句가 되며 基本的인 音數律은 3·4調가 77句, 4·4調가 42句, 2·4調가 19句, 其他 등으로 되어 있다.

그 表現이 순국어로 表現되어 있다는데 <別思美人曲>은 貴族 兩班層의 純國文學으로서 優位

5) 北軒集, 卷4, 詩論文.

를 차지하는 作品으로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別思美人曲〉의 主題는 向主一片丹心과 憂時戀君에의 戀慕와 忠念에 있다. 그 全体的인 作品 內容은 대체로 5文段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그 중 第3段에

누어도 생각이오 안자도 생각이라
아마도 이생각은 일각을 못이즐최
치운밤 더운낮과 죽도반 조셔딘디
님의소식 듯자하니 뉘라서 전할손가⁶⁾

戀君에의 曲盡한 戀慕思念의 一端의 表白을 보여 주고 있다. 곧 一刻如三秋로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가 하면 玉體의 安否를 너무도 안타깝게 궁금해 한다. 이어 第4段에는 向主一片丹心으로 戀君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變身이 되어서도 가까이에서 입을 모시고 싶어하는 意志를 노래하여 곧 차라리 시어져 ①〈구름〉 ②〈바람〉 ③〈명월〉 ④〈명산〉 ⑤〈千尋老木〉 ⑥〈芝草〉 ⑦〈금옥명주〉 ⑧〈오현금〉 ⑨〈화류마〉 ⑩〈새짐승〉 ⑪〈티끌〉 등의 變身이 되어 입을 모시고 싶어하는 意志, 이른바 戀君에의 忠念을 노래하고 있기까지도 한다.

〈別思美人曲〉의 主題는 向主一片丹心과 憂時戀君에의 戀慕·忠念에 있다. 변함이 없는 戀君에의 衷情을 表白하면서 罪지은 바에 대해 自己의 결백을 暗示하는 한편 悔改해 보이며 끝내 不運한 처지에서 생기는 시름을 諦念해 보고 있다.

2)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1) 作家考

李眞儒는 顯宗과 英祖 (1669~1730) 때의 사람으로 文臣이다. 그의 字는 士珍, 號는 北谷, 本貫은 全州, 參判 大成의 아들이다.

肅宗 37年(1707)에 進士가 되고, 이 해 別試文科 兩科에 及第, 이듬해 검열에 등용되었다가 그 후 校理修撰을 지냈다. 同42年(1716) 少論으로서 〈家禮源流〉의 序文과 跋文에서 少論의 領袖 尹拯을 비난한 그 필자 權尙夏 鄭滌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削黜당했다.

景宗 1年(1721) 正言에 기용되고 이듬해 詞諫으로서 世弟(英祖)의 代理聽政을 건의한 老論 四大臣을 彈劾, 이들을 除去했으며 이어 金一鏡 등과 함께 辛壬士禍를 일으켜 老論을 숙청했다.

副提學, 吏曹判書 겸 左副賓客을 역임했고 景宗 4年(1714) 景宗이 죽자 告計副使로 淸國에 다녀 왔다. 이듬해 老論이 등용되자 楸子島에 流配당하여 中央에 押送돼 문초를 받던 중에 獄死

6) 李相寶, 丁益燮, 金聖培, 朴魯春編著「註解歌辭文學全集」, 精研社, p.159.

했다. 이 影響으로 그의 末弟 眞偉의 아들 匡明은 華要望達의 名族에 태어났으나 1775年 伯父 李眞儒에 追施된 逆律에 緣座되어 甲山에 流配당하여 24年間의 형극여생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匡明은 <贈參議公謫所詩歌>라는 流配文學을 남겼다.

(2) 作品考

<續思美人曲>은 李眞儒가 辛丑疏에 聯名한 禍로 인해 流配당하여 流配地 楸子島의 형극 속에서 創作한 流配歌辭이다.

<續思美人曲>은 淸國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오다 禍를 만나 楸子島로 流配되는 데 까지의 經路와 3年間 楸子島에서 流配生活을 하는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과 懷抱를 紀行 叙事的 手法으로 실감나게 그려낸 作品이다.

辛丑疏頭 金一鏡 李眞儒 李明誼 朴弼夢 尹聖時 徐宗厦 鄭楷 世稱下六賊 李眞儒…(中略)
辛丑與一鏡 上疏言代理之不可 語極凶慘 官至副提學 庚戌拿鞠 柁死乙亥 追施逆律⁷⁾

李眞儒는 楸子島에 流配되어 鞠刑을 당하여 후에 杖斃당했고 죽은 지 20년후에 追施逆律을 당하기까지도 했는데 流配地 楸子島에서 自身の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君主를 戀慕하고 放釋을 所願하는 <續思美人曲>을 지었던 것이다.

그 形式은 187節로 374句가 되며 基本的인 音數律은 3·4調가 244句로 우세하고 4·4調가 70句, 2·3調가 30句, 2·4調가 22句, 其他 등으로 되어 있다.

이 <續思美人曲>의 主題는 憂時戀君에의 忠念에 있고 全體的인 作品內容은 대체로 【8文段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그 중 第5段에서

하도도 하고한대 원악디랄 골나내여
빅년 형극을 쉼자도의 처음여니⁸⁾

楸子島는 遠惡地인데, 이 곳에서 백년형극의 島配를 하게 됨을 自歎하면서 이어 第6段에서 流配地 楸子島에서의 苦生 많은 流配生活의 갖가지 모습을 赤裸裸하게 描寫하였다.

십장형니랄 사면의 돌너치고
복편의 궁글두어 물길흘겨유내니

7) 安鍾和 「國朝人物志(III)」, p. 231.

8) 前掲 「註解歌辭文學全集」, p. 177.

구만니 당련을 ㄷ동의 바라보닷
 류야의 들이나니 해도와 멍풍이오
 도모의 셋두나니 당무와 만우로다.⁹⁾

謫所는 絶海孤島요 四面이 十丈荊籬로 둘러쳐 있는 謫所의 환경이 묘사되어 있다. 그 周邊엔 蛇蝎蜈蚣이 득실거리고 있음을 노래하여

사갈오공은 사벌의 중횡하니¹⁰⁾

無人島에 가까운 楸子島의 流配生活에서 食糧의 不足은 極甚한 生活苦를 겪게 할 것임을 노래하였다.

일행이 괴갈한들 무어사로 구할손고
 행락을 떨어내니 수두미뿐이로다
 백죽을 썬어내여 둘러안자 노귀하고¹¹⁾

또한 日常生活에서 艱요한 燃料의 困難을 노래하고 있으니,

도석밥 못넉일계 방넉기 생각할가¹²⁾

그러나 어려운 대로 謫所의 數間茅屋을 손수 改築해서 사는 代目이 있다.

용술 슈간옥을 초창하물 경영할새

 계도는 추익하나 거치는 쇼최하다.¹³⁾

이러한 荒涼한 流配地에서도 한결같이

감군은 삼자를 벼상의 대서하고
 망미현 편액은 유서탈 피열하니¹⁴⁾

9) 前掲書, p.179.

10) 前掲書, p.179.

11) 前掲書, p.180.

12) 前掲書, p.180.

13) 前掲書, p.180.

14) 前掲書, p.180.

실로 向主一片丹心の 忠念에 젖어보는 한편 第7段에서

동아의 잠이업서 응급하고 니려안자
신세랄 자탄하고 평생을 무렵하니¹⁵⁾

身上을 自歎하기도 한다. 이러한 極惡한 流配生活을 赤裸裸하게 描寫한 楸은 流配生活의 斷面을 보여 주었다 하겠다.

이 <續思美人曲>의 主題는 向主一片丹心과 戀君에의 忠念에 있다. 곧 向主 一片丹心을 보여 주는 가운데도 身上을 自歎하면서 自己의 결백과 無罪임을 주장하며 放釋을 哀願하고 있다.

3) 안조환의 萬言詞, 萬言詞答

(1) 作家考

<萬言詞> 및 <萬言詞答>의 作家인 안조환에 대해서는 <國朝人物志> <韓國人名大事典> <李朝名人列傳> 등 文獻에도 여사한 人物이 소개된 바 없거니와 그 밖에 參考文獻이 없어 그 身元을 알 길이 없다. 때문에 아직 상세한 考證은 되어 있지를 않다. 이에 斷片的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抽出하여 가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첫째, 具滋均 등 三人共著인 <國文學概論>에 「…귀양살이가 직접 그 素材로 된 歌辭로는 萬言詞를 들겠는데 이것은 <안도원>의 作으로 그가 34歲에 지은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¹⁶⁾

둘째, 崔常壽著 <國文學辭典>에 萬言詞 李朝正祖 때 <안도환>이 지은 歌辭, 나이 31세 때¹⁷⁾라는 내용이 있다.

셋째, 李相寶 등 四人編著인 <註解歌辭文學全集> 第二編 無名氏分에 「萬言詞는 李朝歌辭의 하나로서 正祖 때의 大殷別監 <안조환>이 지은 것이다… 作家가 34세 때에 楸子島로 流配되어 그 곳에서 풀려나오기까지의 千辛萬苦의 生活相을 노래하였으니¹⁸⁾란 내용이 있다.

네째, 學園社刊 <世界百科大事典>에 「李朝正祖 때 <안조환>이 楸子島에 귀양 가서 고생한 일을 읊은 歌辭¹⁹⁾란 作品項目을 설명한 대목은 있어도 人名項目의 설명은 없다.

다섯째, 李弘植編 <國史大事典>에 李朝正祖 때의 <안조환>이 지은 歌辭 楸子島로 귀양가서

15) 前掲書, p. 180.

16) 具滋均, 孫洛範, 金亨奎共著 「國文學概論」, p. 179.

17) 崔常壽, 「國文學辭典」.

18) 前掲 「註解歌辭文學全集」, p. 391.

19) 學園社刊 「世界百科大辭典」(4), p. 598.

풀려나올 때까지의 고생담을 읊은 것」²⁰⁾이란 作品項目을 설명한 내용은 있어도 人名項目의 설명은 없다.

여섯째, 張德順著 <國文學通論>의 <流配歌辭試考>에 「謾言司는 流配文學으로서 가장 異彩를 띤 長篇歌辭이고 작자는 그냥 <안도원>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혹은 正祖朝의 <安肇煥>으로 전할 뿐」²¹⁾이란 내용이다.

일곱째,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에 「正祖 때에 된 가사, 筆寫本에 의하면 작자가 안도원 또는 安肇煥으로 기록되어 있다. <謾言詞>라는 主歌辭와 <謾言答詞> <思父母> <思妻> <思子> <思伯父>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00여句에 달하는 장편가사 作者가 34세에 楸子島에 流配되었을 때 飢寒에 시달리는 실정과 罪를 누우치는 애절한 사연을 노래로 엮어서 울로 보내니」²²⁾란 作品項目을 설명한 내용은 있어도 人名項目의 설명은 없다.

이상 抽出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要約하면 첫째, 명칭에 있어 <안조환>, <안도환>, <안도원>, <안조환> 등 각기 相異한 이름으로 표시돼 있지만 同一한 사람이라는 점, 둘째, 正祖 때 사람이라는 점, 셋째, 大殿別監 職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 등으로 作家의 顔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流配時의 연령은 34세에 틀림이 없다. 「반성이 치 못되며 늑늑에 들어업네.」

둘째, 작자는 英·正祖朝 무렵인 人物이다. 이는 作品의 語法에서 또 그 作品의 定數律에 의해서 推定된다.

셋째, 신분이 兩班層에 속한다. 作品에 나타난 故事引用과 <萬言詞>의 형식 727節 1454句에서 漢字露出이 1005字라는 점에서 그 教養이 兩班層에 속하며 金門玉階를 출입하게 된 身分에 서로 알 수 있다.

(2) 作品考

<萬言詞>는 안조환이 破廉恥罪로 인해 楸子島에서 創作한 流配歌辭이다. <萬言詞>는 紀行, 叙事的인 作品으로 流配生活에 대한 生活相을 그려 주었고, 한편 자신의 처지를 自歎 哀訴하면서 君主에 대한 忠誠을 再誓約한 내용의 歌辭文學作品이다.

<萬言詞>는 약 1年 동안의 楸子島 流配生活을 노래한 것으로 僞善과 威嚴을 벗어버린 人間 그대로의 체험과 감정을 眞率하게 表白한 作品인데 事實的으로 묘사되어서 그 당시의 景況을 如實히 전해 주고 있어 流配歌辭의 白眉라 하겠다.

그 形式은 727節로 1454句가 되며 기본적인 音數律은 4·4調가 745句, 3·4調가 630句,

20) 李弘植 「國史大事典」, p. 461.

21) 張德順 「國文學通論」, p. 374.

22)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國語國文學辭典」, p. 212.

2·3調가 34句,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그 全体的인 作品內容은 대체로 6文段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그 중 第5段에서

귀자리 한길주어 簷下에 거처하니
冷地에 漏瀝하고 증생도 하도할사
발남은 구렁배암 뱀남은 청진의라²³⁾

謫所의 어려운 환경을 읊은 代目을 볼 수 있고 流配生活 중 飢寒에 떨고 있는 자신의 신상을 자탄해 보고 있다.

아침은 죽이더니 저녁은 그도 없네
못먹어 배고프니 허리며 탓이런가
허기져 눈 깊으니 뒤꽂도 거의로다.²⁴⁾

〈萬言詞〉의 근본 思想은 君主에 대한 忠誠의 再誓約에 있고 儒教的인 忠念에 그 기초를 두었으나 속죄와 悔改에 一貫한 自歎哀訴에 있다.

〈萬言詞答〉은 自歎의인 전면 〈萬言詞〉에 대한 후편이요 答詞다. 그 구성 형식은 和答形式은 148節로 269句가 되며 基本的인 音數律은 4·4調가 210句, 3·4調가 8句, 2·4調가 3句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作品內容은 대체로 4文段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流配生活에 처한 자신을 위로하며 自歎하기도 하여 節義忠念으로 天恩에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放釋될 그 날을 가상하여 歸京까지의 路程을 感興있게 노래하였다.

곧 放釋되면 竭忠報國, 父母奉養을 극진히 하고 조강지처와 함께 富貴榮華를 누리려고 싶다고 所願한 詞다.

2. 流配 漢詩

1) 金淨의 絕命詩

(1) 作家考

金淨은 成宗과 中宗(1486~1521) 때의 儒學者요 文臣이다. 字는 元冲, 號는 冲庵, 本貫은

23) 前掲「註解歌辭文學全集」, p.398.

24) 前掲書 p.414.

慶州이다. 正郎 孝貞의 아들이며 燕山君 10年(1504)에 司馬試에 合格했고 中宗 2年(1507)에 增廣文科에 장원하였다. 正言 등을 거쳐 淳昌郡守로 潭陽府使 朴祥과 함께 康姬 嬪氏의 復位를 상소하다가 報恩의 含琳驛에 流配되었다. 中宗 11年(1516) 풀려나와 뒤에 顯學 同副承旨, 都承旨를 거쳐 吏曹參判 겸 弘文館提學 대사헌을 지냈고 刑曹判書로서 文官제학을 겸임했다. 趙光祖와 더불어 至治主義의 實現을 위해 迷信打破, 鄉約의 전국적 시행 등 업적을 남겼다. 中宗 14年(1519) 己卯士禍 때 洪景舟, 南袞, 沈貞 등의 謀略으로 趙光祖 등 18人과 함께 화를 당해 錦山에 配流되었다가 同15年 正月 珍島로 移置되었다. 錦山 流配時 母親問病을 위하여 報恩을 다녀왔더니 反對派에 探知되어 亡命하려는 것이라는 謀略을 당하고 서울로 押送되어 死刑을 당할 뻔 하였는데 鄭光弼의 도움으로 免死되고 同年 8月 濟州에 安置되었다. 流配生活 동안 興學教化에 힘쓰고 <濟州風土錄>을 著述하고, 물을 파서 마셨는데 그것을 「判書井」이라고 한다.

同 16年 10月 17日 여기서 賜死되었다. 시호는 文簡이요 宣祖 11年(1578) 봄 判官 趙仁後가 冲庵廟를 嘉樂川東에 세웠고 그뒤 橋林書院에 享祀하였으며 憲宗 3年(1837) 겨울 牧使 白希洙는 儒生 姜琦奭의 議에 依하여 謫廬遺墟閣碑을 세웠다. 著書에 <冲庵集>, <濟州風土錄> 등이 있다.

(2) 作品考

金淨은 기묘사화의 희생자로서 錦山定配에 이어 濟州島로 가중 처벌되어 일년 동안의 流配生活를 한다. 그러나 그의 일년은 濟州島民들에게는 십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濟州城 동문 밖 金剛社(寺) 옛터에 있는 초라한 巨老里의 廬幕에 안치되었으나 그는 그 동안에 <濟州風土錄>을 쓰고 喪葬祭儀의 예법을 가르치고 木精寺重修勳文을 지어줄 만큼 佛敎信仰도 권유했고, 巫俗淫祠를 제거하려 했다. 곧 儒敎의 仁, 佛敎의 자비를 크게 일깨워 島民의 生活이 實事求是의 합리로 이끌어 나가게 한 것이다. 아무런 물이나 다 마시지 말고 우물을 파서 위생적인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시범의 우물인 <判書井>이라는 곳이 남아 있다. 어쩌면 가장 현명한 濟州 목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가 濟州島民의 삶을 改良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끝내 반대파에 몰려서 王의 自盡 명령을 받아 스스로 絞死 자결했다. 36세의 絶命이었다.

投絕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遺欺世兮隔餘命

乘雲氣兮歷帝闕
 從屈原兮高遼遙
 長夜冥冥兮何時朝
 耿炯丹衷兮煙華索
 堂堂壯志兮中道摧
 嗚呼千秋萬才兮應我哀²⁵⁾

이 비장한 冲庵 金淨의 絶命詩는 自歎에 一貫한 情은 36세를 최후로 하는 朝鮮朝의 <楚辭>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편협한 儒學者가 아니라는 사실은 古代 中國 楚의 자결자 屈原에 그 자신의 운명을 탁하여 楚辭風의 辭世絶命詩를 남긴 것으로 그의 비극 외에도 큰 충격이 된다. 그의 流配漢詩는 그러한 점에서 값있다 하겠다.

2) 光海君의 在園籬中吟

(1) 作家考

李朝 15代 王 在位 1608~1623年, 이름은, 宣祖의 둘째 아들,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 때 피난지 평양에서 世子에 책봉된 후 分朝를 설치하고 함경도 전라도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 軍糧米의 조달 등으로 난의 수습을 위해 힘썼다. 宣祖 39年(1606) 계비 仁穆王后에게서 永昌大君이 탄생하자 庶子이며 둘째 아들이라는 결함이 있는 그의 즉위를 두고 小北은 永昌大君을 옹립, 大北은 그를 지지하여 黨爭으로 확대되었다. 宣祖 41年(1608) 선조가 병에 위독하여 그를 後嗣로 禪位의 教書를 내렸으나 小北의 柳永慶이 이를 감추어 한 때 大北이 물러났다가 鄭仁弘 등의 극간으로 유영경의 음모가 밝혀져 마침내 即位했다. 李元翼을 등용 초당파적인 정책을 구현하고자 했으나 정인홍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光海君 3年(1611) 정인홍이 李彦迪 李滉의 文廟從祀를 반대 退讀시켰고 이듬해 金直哉의 誣獄이 일어나자 관련된 학자 문신들을 추방했다. 光海君 5年(1613) 大北派가 朴應厚 徐羊甲 등 사건을 악용 金梯男을 사사하고, 永昌大君을 庶人으로 강등 江華로 流配시켜 이듬해 仁祖反正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光海君으로 강봉되고 仁祖反正 初 喬洞에 放하였다가 同 15年(1637) 5月 濟州로 移配하였는데, 同 19年 7月 卒하였다. 仁祖는 禮曹參議 蔡裕後를 보내어 護喪하도록 했다.

25) 冲庵集.

(2) 作品考

濟州 流配地에서 지은 「在圍籬中吟」이란 七言詩가 있다.

本是國根何太薄
理宜相愛亦相哀
緣何脫此樊籠去
緣水青山任去來²⁶⁾

이 〈在圍籬中吟〉에서는 人倫에 哀訴하는 身上歎의 詩的 零團氣가 감돌고 있다.

3) 任觀周의 磨崖詩

(1) 作家考

英祖 43年(1767) 2月 時政을 論하고 大臣들을 論斥하였다가 王의 노여움을 사서 濟州에 定配되고 倉川里에 謫居하다가 同年 9月 5日 釋放되었는데 그의 遺跡으로는 倉庫川 岩壁에 流配漢詩가 새겨져 있다.

(2) 作品考

安德溪谷 岩壁에 새겨져 있는 五言絕句를 보면 다음과 같다.

始出荊門日
先尋枕下川
蒼岩三曲立
短瀑晚楓邊²⁷⁾

위의 詩는 流配生活에서 自然愛에 젖은 詩的 心情을 表白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白鹿潭 東壁에도 다음과 같은 自然愛에의 沒入을 노래한 磨崖詩를 남겼다.

26) 乙文西化社刊『李朝名人詩選』, pp. 78-80.

27) 朴用厚『濟州島誌』, p. 173.

茫茫滄海濶
 上攀漢擊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之頭

4) 金正喜의 配所輓妻喪

(1) 作家考

金正喜는 正祖와 哲宗(1786~1856) 때의 사람으로 文臣이고 文人이며 金石學者이다. 또한 書畫家이기도 한데 字는 元春이며 號는 阮堂, 秋史, 禮堂, 時庵, 果坡, 老果 등이었다. 本貫은 慶州이다. 判書 魯敬의 아들이며 伯父 魯永에게 入養, 純祖 9年(1809) 生員이 되고 純祖 19年(1819)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說書, 檢閱을 거쳐 純祖 23年(1823) 奎章閣待教가 되었다. 忠淸右道 暗行御史, 檢詳을 거쳐 憲宗 2年(1823) 大司成을 역임했으며, 吏曹參判에까지 이르렀다. 憲宗 6年(1840) 尹尙度의 獄事에 연루되어 濟州島에 圍籬安置, 憲宗 14年(1848)에 석방되었으나 哲宗 2年(1851) 憲宗이 廟遷問題 때 그 주장자로 北靑에 流配, 이듬해 풀려 나왔다. 學問 연구에 있어서는 實事求是가 要道임을 주장하고 그것은 訓話로써 實踐을 하는데 있다고 力說하였다. 또한 歷代의 名筆을 연구, 그 장점을 모아서 독특한 秋史體를 大成한 명필가로서 특히 隸書, 行書에는 전무후무한 신경지를 개척했다. 그림에 있어서는 竹蘭과 山水를 그렸는데 사실보다 품격을 위주하며 禪味가 풍기는 南宗畫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金石學에도 조예가 깊어 純祖 16年(1816) 종래 僧 無學의 비석이라던 北漢山 비봉의 비석이 신라 眞興王 巡狩碑임을 考證하였다.

(2) 作品考

那將月姥訟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使君知我此心悲²⁸⁾

流配地 濟州에서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했다는 訃告를 받고 슬픔을 달래다 못해 노래한 '配所輓'

28) 李丙曠譯注「韓國漢詩選」, p. 218~219.

妻喪'이라는 七言絶句인데 喪妻한, 孀寡孤獨의 悲痛한 心情을 잘 表白하였다.

3. 流配祭文

1) 尹塾의 流配祭文

(1) 作家考

尹塾은 字가 汝受 坡平人 坡平府院君의 後人이다. 英祖 25年(1750) 29歲에 登第 翰林을 拜하고 壬午年(1762) 5月 世子禍 親鞠時에 史官으로 入侍했다. 始終 英祖와 이에 追從하는 大臣들을 叱辱한 까닭에 海南²⁹⁾에 귀양 갔다가 2年 뒤에 풀리더니 同47年(1771)에 또다시 濟州 大靜縣에 島配³⁰⁾를 당해 翌年 2月 喪配를 당하였어도 알지 못했다. 짓궂게도 그해 5월에 풀려서 돌아왔으나 그 분통을 달랠 길이 없었다. 某年喪의 날을 당하여 곧 同49年(1773) 2月 17日을 期해서 이 祭文을 지은 것이다.³¹⁾

時代는 바뀌어서 正祖가 登極하여 元년에 兵郎을 除하고 이어 校理大司諫 兵曹判書에 累進되었다. 金鎭秀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外職으로 나갔으며 過欲으로 인하여 失明을 하고 8년간이나 신음하는 중에 正祖의 思念이 깊어 超秩해서 判中樞를 拜하고 卒後에 議政에 贈職 諡號는 忠肅이었다.³²⁾

(2) 作品考

尹塾의 流配祭文은 그의 後孫 尹用滿으로부터 建國大學 金一根 박사에게 提供되어 문헌적 資料를 받게 된 것으로서 23張의 內容이 前後表紙가 완전한 채 胡蝶裝으로 되어 있으며 28Cm의 正方形이다. 一面 18行씩 上下 36行이니 全 1528行 即 1528句(歌辭式句數)라는 長長한 巨篇의 流配祭文이다.

作品 末尾 側面에 「갑신 삼월일 불초 현손 조령 근장 우안변 임쇼」라 첨기하였으니 이와 같이 裝幀을 한 것은 甲申年(1884) 3월에 尹塾의 玄孫 祖榮이 安邊任所에서 한 것이며, 따라서 表紙에 <정경부인 연안씨 제문>이라 쓴 것도 裝幀者가 쓴 것을 알 수 있다. 또 뒷 表紙 內

29) 英祖實錄 38年 壬午閏5月 丙子條 「… 上竄尹塾于海南」.

30) 前揭 47年 8月 癸酉條에 「… 塾大靜縣勿限定配…」.

31) 祭文 序頭에 「계사이월 열이렛날 갑술」이란 干支가 있다.

32) 金一根 「貞敬夫人 李氏祭文」(建大人文學論叢 9, 1976), p. 126, 新丘文化社刊 「韓國人名大辭典」, p. 559 參照.

面에 「이 책은 증숙공 친필이신 고로 억만터에 유전할 귀중품이니 우리 조손들은 무루히 봉독 함에 겸야 상처안키를 주의하라. 무진 이월 일 불초 오터손 교창」 또, 앞 表紙에 같은 筆蹟으로 「忠肅公親筆貞敬夫人 祭文」이라 밝혀 있으니 上記 祖榮의 아들 「교창」이 그 뒤에 다시 加筆한 것이다.

그 文獻的 價値는 첫째 男性이 지은 한글 제문이고 歌辭形式이 아닌 長篇漢詩 諺解形式으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이 제문은 從來의 國文學의 어떤 類型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作品이다. 둘째 제문의 대상이 바로 작자의 아내이고 또 부부간의 情이 남달리 솔직하게 描寫되어 있다는 점에서 封建社會의 慣習을 깨뜨린 破格的인 問題作이다. 셋째 日東壯遊歌보다는 分量이 적지 마는 製作의 年代가 相近하고 그 形式이 長篇 叙事詩라는 점에서 李朝 後期의 韻文學이 長篇 叙事性을 指向했다는 傾向을 立證하는 作品이다. 넷째 流配生活, 田園逃避黨爭으로 인한 宦海 風波, 庶民社會의 人心 등 여러가지 당시 社會의 諸相을 包括한 一大 叙事文學이다. 다섯째 恨中錄과 表裡를 이루는 姉妹的인 作品이다. 곧 思悼世子 事件을 背景으로 하여 궁중에서 기록된 것이 恨中錄인데 대해서 이 尹鏊의 제문은 민간에서 기록된 作品으로서 좋은 對照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제문이 갖는 國文學上的 比重을 再評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 韻律의 破格을 통해서 散文詩의 可能性을 보여 주는 뛰어난 文學性을 지닌 作品이다. 일곱째 年代와 作者가 確實한 데다가 親筆稿本인 까닭에 當時의 英祖代 國語現象을 반영하는 嚴密한 資料이다.³³⁾ 流配祭文의 한 代目을 보면

계궤 드러온 후는
비로소 도색의 곡항도다
귀운이 전항때 이에 그치니
능히 거거치 못항도다
양식을 기우려 토산을 무역항야
그더 심계를 경영항도다.
말을 더항야 슬피울때
계던의 보닐 길히 업도다.³⁴⁾

濟州流配生活의 한 斷面을 踏實하게 表白하여 주고 있는가 하면 祭文의 末尾에 실로 작자의 夫人에 대한 衷情을 表白 하여주고 있다.

심각건대 내신세
우우항야 비냥항도다.

33) 前掲「貞敬夫人 李氏祭文」, pp.125-127.

34) 前掲書, p.125.

그런 도라가고 내 홀노이시니
 이성에 쓰어시 즐거우리오
 다만 도라갈 날을 기다려
 그러로 더불어 영모를 훈가지로 향리로다.
 신령이 그 이를 드물가
 실노 내 통명이로다.³⁵⁾

2) 金正喜의 流配祭文

(1) 作家考

流配漢詩에서 밝혔다.

(2) 作品考

秋史가 流配地 濟州 大靜縣 講居中에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했다는 訃告를 받아 상복을 갖추
 고 슬피 통곡하여 쓴 夫人 禮安李氏哀逝文인데 이것을 流配祭文으로 다룬다.

慘生離別而死別 感永逝之莫追 綴數行文 寄與家中 文到之日 因其饋奠 而告之靈凡之前
 曰嗟嗟乎 吾柎榻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一婦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握其心
 此曷故焉³⁶⁾

人生 百年을 同居偕老하다가 死別한다는 것도 슬픈 일인데 하물며 流配地에서 流刑囚의 몸으
 로 지내다가 夫人이 他界하여 ‘慘生離而死別’ 한다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인 것
 이다. 秋史가 夫人 禮安李氏의 訃告를 받고 슬피 통곡한 代目이다. 이어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而獨夫人之不可有死 以不可有死而死焉 故死而含至悲 茹奇冤 將
 噴以爲虹 結而爲雹 有足以動夫子之心 有甚於柎榻乎 嶺海乎³⁷⁾

秋史의 夫人에 대한 哀逝가 絶頂을 이루고 表白된 代目이다. ‘故死而含至悲 茹奇冤 將噴以爲
 虹 結而爲雹’의 表現은 우리 詩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찰하리 석여디여 범나비 되오리

35) 前掲書, p.165.

36) 阮堂先生全集 卷七

37) 前掲書.

라'(思美人曲) '찰하리 석여더여 落月이나 되야 이서'(續美人曲) '차라리 석어저 구름이나 되어이서' (別思美人曲)의 發想法과 類似하다. 다르다면 秋史의 경우는 容體의 表現이고 松江과 北軒의 경우는 主體의 表現등의 差異가 있다 하겠다. 이어

嗟嗟乎 三十年孝德 宗黨稱之 以至朋舊外人 皆無不感誦之 然人道常而夫人所不肯受者也 然俾也可忘³⁸⁾

亡妻의 婦德을 기리고, 그럴수록 잊을 수 없음을 表白하였다. 結尾에

今竟夫人先死焉 先死之有何快足 使吾兩日 鰥鰥獨生 碧海長天 恨無窮已³⁹⁾

絶海孤島인 遠惡地 濟州에서 流配生活中 夫人을 잃은 流刑囚로서의 착잡한 心情이 '碧海長天 恨無窮已' 바로 그것임을 吐露하였다. 秋史의 夫人 禮安李氏 哀逝文은 夫人의 訃告를 받고 流配地에서 직접 쓴 作品으로 從來의 漢文祭文의 形式에서 벗어난 流配祭文으로 秋史의 流配文學의 眞面目을 엿보여 주는 作品이라 하겠다.

4. 流配時調

1) 宋時烈의 流配時調

(1) 作家考

宋時烈은 宣祖와 肅宗 (1607~1689) 때의 사람으로 文臣이요 學者이다. 그의 字는 英甫 號는 尤庵, 本貫은 恩津, 金長生의 門人이다. 仁祖 11年(1633)生員試에 一等으로 合格, 敬陵 參奉이 되었고 孝宗의 師傅가 되었다. 이어 孝宗이 即位(1649) 하자 掌令에 登用, 世子侍講院進善을 거쳐 執義가 되었다. 孝宗 2年(1651) <長陵誌文>에 淸國年號를 使用치 않았다는 理由로 功西派 金自點의 密告와 淸國 使臣의 壓力으로 落鄕했다. 孝宗 9年(1658) 贊善에 再登用, 이어 吏曹判書로서 孝宗의 北伐計劃을 推進했으나 이듬해 孝宗이 죽자 中斷했다. 顯宗 即位年(1660)에 孝宗의 葬禮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是非되자 南人의 二年說을 反對하고 某年說을 採擇하였다. 西人의 指導者로서 判義禁府事 判中樞府事, 左參贊 등을 歷任하던 中 顯宗 15年

38) 前掲書.

39) 前掲書.

(1674) 仁宣王后的 別世로 다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提起되어 南人의 暮年說이 採擇되므로써 西人의 失脚과 함께 官爵이 削奪되었다. 肅宗 1年(1675) 服制論 是非로 慶源에 流配, 熊川, 巨濟島로 移配되었다. 肅宗 6年(1680) 庚申大黜陟으로 南人이 失脚하자 叙用되고 奉朝賀가 되었다. 肅宗 15年(1689) 元子冊封 問題에 反對하다가 肅宗의 震怒를 사서 濟州島로 流配되었다.

肅宗朝 拜右相至左議政... 甲寅尹鑄借禮論構禍 遂至北謫卒及幽囚於海島 禍益急而毅然...
肅宗己巳謫于濟州 拿到井邑賜死⁴⁰⁾

곧 再鞠問을 받기 위해 上京 途中 井邑에서 賜死되었다. 그는 西人의 巨木이요 禮學의 碩儒였다. 西人 分裂時엔 老論의 指導者로서 活躍하는 한편 流配에서 賜死로서의 波瀾 많은 生涯를 살았다. 諡號는 文正이다.

(2) 作品考

님이 헤오시매 나는 전혀 미덧두니
날 사랑하던 情을 누손터 옮기시고
처음에 의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라

〈珍膏 298〉

作者는 老論의 領袖로 벼슬길에 나갔다. 자주 사임했고 때로는 流配生活을 겪기도 했으니 이 時調는 그러한 心境을 表白한 것이다. 이 時調에서의 〈님〉은 물론 임금이다. 임금의 사랑을 받다가 내침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담담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한 作品이다. 임금에게 버림을 받고도 〈君恩이 망극하다〉하고 〈亦君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李朝時代人의 意蘊構造였는데 그러한 君子然한 자세보다도 원망에 찬 戀君에의 情이 오히려 소박하고 人間味가 있다. 동시에 임금으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게 만든 주변의 奸臣輩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스며 있음을 볼 때 정말로 원망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政敵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어

늙고 병든 몸이 北向하야 우리노라
님向호 마음을 누안 두리마는 돌보고
발긴적이면 나쁜인가 호노라

〈가람本 靑丘永言 188〉

流配生活에서 늙고 병든 몸이면서도 임이 계신 곳 北向하며 戀君에의 忠念을 노래하기도 했다.

40) 前編 「國朝人物誌(Ⅲ)」, p.145.

2) 柳赫然의 流配時調

(1) 作家考

柳赫然은 光海君과 肅宗 (1616~1680) 때의 사람으로 武臣이다. 그의 字는 晦甫, 號는 野堂, 本貫은 晉州, 晉陽君 孝傑의 아들이다. 仁祖 14年(1636) 丙子胡亂에 父親이 安州에서 戰死하자 出戰했으나 中途에서 南漢山城이 陷落되고 濟나라와 和約한 消息을 듣고 悲憤하여 歸鄉했다. 仁祖 22年(1644)에 武科에 及第, 關西를 지키고 德山縣監을 거쳐 宜川府使가 되었다. 이어 孝宗 4年(1653) 黃海道 兵馬節度使를 거쳐 三道水軍統制使, 訓練大將, 右捕盜大將, 戶曹判書 등을 歷任했다. 肅宗 6年(1680) 庚申大黜陟에 連座되었다.

官至刑曹判書訓練大將... 庚申謫寧海移配大靜 賜死⁴¹⁾

곧 寧海로 流配되었다가 濟州島 大靜으로 移配 賜死되었다. 死後에 領議政에 追贈, 諡號는 武愍이다.

(2) 家品考

덧돈물 서서 남고 드는칼 보미거다.

無情歲月은 白髮을 저속하디

聖主의 累世鴻恩을 못가플가 하노라

<珍青 104>

그 언제면 放還될 것인지 期約없는 流配生活로 因해 聖主에게서 입은 累世鴻恩을 못값을까 念慮하며 身上을 自歎한 것이라 하겠다.

5. 流配漢文隨筆

1) 金淨의 濟州風土錄

(1) 作家考

流配漢詩에서 밝힌음

41) 前掲「國朝人物誌(Ⅲ)」, p. 198.

(2) 作品考

濟州風土錄은 濟州流配時에 지은 漢文隨筆이다. 이 濟州風土錄의 內容은 濟州島의 특수한 기후 조건에 따른 가옥 구조 風俗 특히 蛇神과 巫堂의 피해, 官員의 墾拓 土地 耕作의 양상과 제주도 動物과 조류 토산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신의 적거생활 모습이 記述에 있다. 그중에서도 이 글의 第7段과 末尾에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作家의 精神狀況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그 第7段을 例舉하면

…如太白所云 雲垂大鵬翻 波動巨鯨沒者 唯此可以當之惜吾羈囚勢不能耳 然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 蓋有欲來不得 欲止不免者似 亦冥數前定 何足與焉⁴²⁾

이어 이 글의 末尾에도 流配生活의 眞面目을 보여 주는 代目이 있음을 본다.

…海釣則又風浪洶濤 絕少安帖之日 尤無淡雅之味 且所借非土人 即方生(生名舜賢判官之妻甥 學儒於吾輩 事頗聞風持意 足多稍可談話 而染俗乏 雅於江湖無入處 然海外遇斯人豈非幸甚歟) 豈足發吾興 既無意中人 可共如君所言 略無心宗 且國法可畏故 其出甚 稀一朔下過或一或二或 踰朔下出利木亭 亦不甚 數出 橋園尤稀往 踽踽獨步 祇增索寬耳 (橋熟時則嫌亦宜速官有直守) 骨肉隔絕 親知悠緬 昔時遊從 凋喪已多 天外孤身 幾嘗世故 尋常處心 固未嘗不怡 然順理而忽念到 亦未嘗不愴然以感也⁴³⁾

2) 李健의 濟州風土記

(1) 作 考

李健은 宣祖의 第7男 仁城君의 세째 아들이다. 仁祖 6년(1628) 정월에 柳孝立 등의 광해군 복의모의에 인성군이 가담하였다 하여 인성군은 작위를 삭탈당하고 珍島에 流配당했다가 同年 5월에 41才의 나이로 賜死하였다. 그리고 그의 처자 일가족은 濟州島로 流配당했는데 家族으로는 부인 尹氏와 아들 3兄弟, 딸 하나이었다.

李健은 그 중 막내로서 그때 나이는 15세이었다. 그는 8세 때 이미 小學과 大學을 읽었고

42) 金淨「濟州風土錄」(1520)

43) 前揭書.

兄弟들 중에서도 뛰어난 詩, 書, 畫에 능하여 三絶이라 일컬어졌다. 그들 王孫 가족들은 8년간이나 濟州에서 謫居하였는데 부친 仁城君이 賜死되어 蒙喪중이었으므로 3년 동안이나 喪服을 입고 飮食物도 겸소하고, 지극히 근신하여서 喪祭 儀禮를 지내는 것을 보고 島民들은 감탄하였다고 한다. 仁祖 13년(163) 鄭蘊의 상소에 의하여 인성군이 無罪됨에 그 家族들도 8년간의 流配生活에서 풀리어 본토로 가게 되었는데 仁祖 15년(1637)에 李健은 海原君에 봉해져, 그의 父親의 대를 잇게 되었다. 著書에 葵窓集이 있다.

(2) 作品考

이 濟州風土記는 濟州流配時에 지은 漢文隨筆이다. 그 내용으로는 島内の 風俗 牧畜狀況과 목자의 고통, 농사의 경작상황, 꿀 종류에 대한 설명 潛女の 風俗과 관원들의 횡포, 神堂의 모습, 本島의 동식물, 三姓穴의 神話, 金萬謫의 屯馬에 관하여 記述해 있다. 그 중에서 글의 末尾에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作家의 精神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耽羅一島 邈在大海之中 瘴癘所鍾 海毒所蒸 無論冬夏 不風則必雨 不雨則必嵐 晴明之日極少 至於颶風 掀天之時 人多感傷 不堪其苦 而島人則 別無所傷 最苦者粟飯也 最畏者蛇蝎也 最悲者波聲也 以至於 日下之消息 鄉關之音信 付之夢魂之外 無路可聞 疾病之來 只自束待死 無以施鍼藥之方 此實通國久罪地 人所不堪之處 國家所以放逐 有罪人於此地 深得其宜也 耽羅 通國之罪地 而流竄邦家之重典也 十年歲月之最久 而不佞人中之最弱也 以人中最弱之身 蒙流竄之重典 謫耽羅之罪地 經最久之歲月 而終免魚腹之葬 生還鞞鼓之下 重廟宗班之後 坐度太平之世 此無非聖朝生成之恩 祖告積善之慶 中夜言念感淚時零 凡我子孫 體念于此 世世代代 益懋忠孝之節 是余所望也⁴⁴⁾

5. 流配書翰

1) 金正喜의 流配書翰

(1) 作家考

流配漢詩에서 밝혔다.

44) 李健「葵窓集」卷五.

(2) 作品考

秋史의 한글書翰 10通이 金一振博士에 의해 發掘되어 紹介된 바가 있다.⁴⁵⁾

이 10通의 한글書翰은 그 시기와 事件別로 3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곧 ① 第1·2信 ② 第3·4·5信 ③ 第6·7·8·9·10信으로 묶어 볼 수가 있다.⁴⁶⁾ 이 중에서 第6·7·8·9·10信이 바로 濟州島 流配중 夫人에게 쓴 滿紙長書이다. 憲宗 6年(庚子)에서 9年間의 濟州流配 生活은 그의 恨많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것이 다 安東 金氏의 勢道政治의 희생으로 秋史一門의 困辱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5통의 書翰은 流配 후 그 부인이 病死할 때까지 2년여 동안에 왕래했던 秋史의 賜斷曲이다. 그 第6信 중에

그사이 또 달이 너머사오니 년하와 평안이들 지내오시압, 계셔난 이사이 엇더하압. 관겨치 아니타 하오나 관겨치 아니하을 이가 잇삽, 아마 먼데 샴이라곤 숨기난 듯하오며 속미음은 년하야 자시압. 계셔가 몸을 보호하야 가난거시 날 보호하야 주난 것이오니 그리 아오시압…… <중략> … 지난 달 희일 계사 지나오시니 철철철디한 맘극지통 더욱 원통순박하야 죽지에 죽어 모로고 시보오니 고금천하에 이런 샴의 경디 광경이 어대 앓사올앗가.⁴⁷⁾

곧, 夫人의 건강을 걱정하며 父親魯敬의 祭日(3月 30日)을 당하여 세도싸움의 희생이 된 父子間의 賜斷의 怨恨을 되짚었다. 이어

서울서 보낸 칩체난 원악 옆을 과히한 거시라 변미난 하야시나 그러도 칩체에 쥘린 입이라 견대여 먹어삽, 새오져만 변미하고 조괴져과 장복기가 변미 그리 아니하오니 이상하압, 미어와 산포난 관겨치 아니하압, 어란갓튼 거시나 그 즈음서 엇기 쉽거든 보내압, 산체난 더러 잇나보데 여긔 사람은 순견 먹지 아니하오니 고이한 풍속이압⁴⁸⁾

서울에서 보내준 반찬들을 볼 때 당시 제주도 生活의 斷面과 流配生活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第7信의 內容은 辛丑 시월 초일일의 書翰인데 秋史는 流配중계 있으면서도 宗孫의 입장에서 모든 家間事와 連袂威黨間의 安否를 걱정하였다. 이어

45) 「文學思想」(76), 1979, 1月號, pp. 322-340, 金一振博士에 따르면 「文學思想」에 10통에 한글편지를 발굴 소개한 후 다시 10통의 한글편지가 발굴되었다기에 20통의 한글편지가 발굴된 셈이다.

46) 第一, 二信은 秋史 33歲時 戊寅年(純祖18年)에 쓴 편지이고, 第三, 四, 五信은 秋史 43歲時 戊子年(純祖28年)에 쓴 편지이다.

47) 「文學思想」(76)1979年, 1月號, p. 329.

48) 前掲書, p. 329.

나난 요사이야 조금 낮게 지내압고 음식 먹기도 저기 입맛시 부쳐 여상기 먹고 쌀도범절
도 여름보단 낮잡고 혹가다가 고기맛도 보오니 그만하면 또 아니 지내야 가을 듯 하며...⁴⁹⁾

竄島凡節인 流配生活의 한 斷面을 보여 주고 있다.

第8信은 임인 삼월 초사일의 書翰이다. 秋史에게 庶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流配 다음해에
十寸尺 泰喜의 아들 商戀를 入養시켰다. 그 養子가 養父인 秋史와 相面하려고 濟州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만류한 內容의 글이다. 그만큼 당시 遠惡地 流配地인 濟州 往來는 生死間의
험한 길인 까닭에 途中의 萬一事를 몰라 중지를 시킨 것이라 본다.

第9信은 임인 사월 초구일의 書翰이다. 동생 命喜의 無男獨女가 35세에 夭死했음을 듣고 동
생의 신변을 걱정한 유달은 友愛와 夫人에게 藥과 食補를 걱정하고, 맞아들인 子婦의 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한 內容의 글이다.

第10信은 임인 至月 십팔일의 書翰이다. 이 書翰을 쓰기 5日 전에 이미 夫人은 세상을 떠났
던 것이다.

이사이 년하야 병환을 폐지 못하오시고 일양 진퇴하시나 보오니 발셔 여러 달을 미류하오
며 근넉범백에 오작하와 겨오시계삽 우륙정을 자시나보오니 그 약에나 폐히 동녕이 겨시울
지 원의셔 심너초절하옵기 형용못하게삽⁵⁰⁾

夫人이 世上을 떠난 것도 모르고서 夫人의 병환을 걱정한 형용기 어려운 정도로 心慮焦折한
心情을 表白하고 있는 代目이다.

秋史의 한글書翰의 발골은 그가 珠玉 같은 한글 文章을 썼다는 점에서 그의 實事求是學은
主体性에 입각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濟州島에서 쓴 流配書翰은 流配生活의 眞
相, 濟州島의 習俗을 反映하여 준 流配文學의 極致라 하겠다.

秋史가 濟州에서 쓴 流配書翰은 앞에서 考察한 한글書翰 以外에도 漢文書翰이 22통이나 된
다. 곧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4통과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 9통 養嗣子 商戀에게 보낸
書翰 3통 庶子 商佑에게 보낸 書翰 1통,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書翰 2통, 秀弟子 申觀浩에게
보낸 書翰 3통 등 도합 22통이 바로 그것이다.

大靜在州城西八十里 其翌大風 無以前進 又其翌即初一日也 風止故 遂與金吾郎登程 半程
即純是石路 人馬雖難着足 半程以後稍平 而又從密林茂樹中行 匪通一線天光 皆是嘉樹美木

49) 前揭書, p. 331.

50) 前揭書, p. 335.

而多青不凋 間有楓林 如程紅 又異於內地楓葉 甚可愛翫 而嚴程蒼皇 有何避况舉⁵¹⁾

秋史가 尹尙度獄의 再論으로 濟州 大靜縣에 園籬安置의 流刑을 받아 流刑地로 가는 歷程을 쓴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1信의 한 代目이다. 아름다운 濟州의 大自然이 매우 사랑스러워 구경할 만했으나 流刑囚로서 갈 길이 멀하고 바쁘기 무슨 흥취가 있겠으며, 하물며 어떻게 흥취를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고 表白한 霧圍氣에서 秋史의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精神의 狀況의 一面을 考察할 수가 있다.

允婦之順婉 舉丈夫子 是宗祧初有之慶 祖宗眷佑 家運將回 其先之以嘉兒耶 至若在抱之樂 年迫六十 豈不欣喜 此兒非吾所得而私之也 兒生聞在臘晦 其日即爲天恩上吉也 仰符於先親 生辰 亦不偶然 且吾輩之日日願祝 在於天恩 而兒以是天恩日生者 尤囚不奇且異耶 兒名仍以 天恩二字命之 甚好… (中略) 念切念切⁵²⁾

秋史가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2信의 한 代目이다. 큰머느리가 선친의 생신과 같은 날인 天恩日에 아들을 낳았음을 眞心으로 기뻐한 內容이다. 流刑囚로서 家運이 回復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且吾輩之日日願祝 在於天恩'에 있다고 함은 君王에게 忌諱당한 몸이면서도 오히려 '亦君恩이 샀다'고 戀君해 하는 朝鮮朝의 선비의 意識構造의 一面이라 하겠다.

…雖知患候之 萬分危重 而豈料此大海之外 又承此婦氏赴車也 憫矣憫矣 以長逝之近七十年 險阻艱難 無不備經 脫然若懸解者 便復浩然, 無少留愛於此世 願此崎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念於冥冥之中 猶有不能忘 於海外 不肖無狀之身 到底慟裂 生者尤可悲也… (中略)…北望長吁 有淚無從而已⁵³⁾

秋史가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3信의 한 代目이다. 누님의 訃音을 듣고 血淚를 뿌리며, 流刑囚로서 '願此崎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하며 自歎하고 있다. 秋史는 婦氏의 他界에 앞서 3年前의 壬寅年(1842年)에 夫人마저도 他界하는 悲劇을 겪은 바가 있다. 이른바 悲劇의 連續 그것이었다. 이어

去念後 英吉利船 來泊於旌義之牛島 距此爲近二百里 而彼船則別無他事 只是一過去船 而一

51) 阮堂先生全集 卷二.

52) 前揭書.

53) 前揭書.

島懸擾 不能底定 州城如經一亂 此中屢能開諭 幸不至如州矣⁵⁴⁾

憲宗 11年(1845) 5月 22日 英國 軍艦인 Samarang號가 Edward Belcher艦長 인솔하에 測量의 임무를 띠고 濟州島 旌義縣 止滿浦 牛島에 來泊했던 사실을 書信 속에 記錄되어 있어, 당시 濟州島의 狀況을 理解케 한다.

序屬三秋 仲之壽甲載屈 吾輩孤露之餘 何足以尋常 喜慶舉揚 又況此時也…(中略)…大斗之祝 又何以退其情也 亦有所俯以就之 顧此海外 漠然若無與之相關涉者 抑何情理 無或以 茱萸少一有 所致欠於家室歡洽 亦反復爲我地 天涯一室 何異乎此身之日左右 惟願宜兄宜弟 令德壽 豈永享無疆…(中略)…吾比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證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者 神氣隨以蕪頓 收拾不得⁵⁵⁾

秋史가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4信 中の 代目이다. 舍仲 命喜가 回甲을 맞은데 眞心으로 祝賀하는 內容, 그 兄弟의 友愛가 깊음을 叙述하였고, 流配地에서 舍仲 命喜의 回甲宴을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王維의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의 詩想을 빌어 表白하였으며 자신의 健康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1信엔 流配地에서 國婚의 慶事를 듣고서 臣下로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답답한 心情을 表白하였고, 流配生活의 어려움을 ‘一縷之苟延於至今者 竟又何所候而暇眼如無故人耶 丑此見伏 萬無支存之道惟願速死而已’라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김치 맛을 보니 심히 입맛이 상쾌하다고 적고 있는데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한 2年後이고 보니 그 정성이 고마웠을 것이리라.

其中書畫譜一匣 及周易折中 家中舊本之爲兩匣者 頗便於遠來 必先圖之 外此諸種 亦隨以漸次寄來 寔爲少得鎮心之方⁵⁶⁾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2信의 한 代目이다. 秋史가 流刑囚로서의 不安感, 그리고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하여 3年 이어 姉氏마저 他界한 即後이고 보니 憂鬱할 수밖에 없는 精神의 狀況이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鎮정시키는 方法으로 書畫와 周易에 沒入하려 든 점을 理解할 수 있다. <書畫譜>란 淸나라 孫岳領 등이 奉旨纂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卷을 말함인데

54) 前掲書.

55) 前掲書.

56) 前掲書.

歴代の 書畫를 品評하고 書畫家傳 및 書畫跋 書畫辨證, 監藏 등 書畫에 관한 일체의 內容을 수록하여 考證, 註釋한 것이고 <周易折中>이란 淸나라 聖祖가 御纂한 御纂周易折中 22卷을 말함인데, 周易의 訓解에 대한 諸家の 說을 종합하여 經義를 發明한 것이다. 秋史가 流配生活 중 이것을 舍季 相喜에게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점에서 그의 學問과 藝術의 傾向을 엿볼 수 있다.

家藏有不題籤之法帖兩套 青布匣黃木衣 此名藏眞帖者也 內有褚書千文 鍾書靈飛 以及宋元人書者 幸隨暇覓出 付送於秋伴來時 鴻山叔主 借去端木國瑚 周易指 亦爲覓來 同送之地 如何如何⁵⁷⁾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3信的 한 代目이다. 藏眞帖이란 明나라 萬曆末 陳元瑞가 새긴 渤海藏眞帖 8권을 말함인데 권1에 鍾紹京의 小楷靈飛經, 권2에 褚遂良의 千字文 및 蘭亭叙 陸柬之의 蘭亭詩, 권3에 蔡襄의 詩牘, 蘇軾의 尺牘, 권4에 蔡京의 大觀御筆記 黃庭璧의 尺牘, 권5에 米芾의 擬古詩 및 米友仁의 蘭亭跋 권6에 趙孟頫의 小楷黃庭內景經, 樂毅論, 臨右軍三帖, 권7에 眞草千字文, 권8에 梅花詩, 題桃園圖尺牘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藏眞帖과 周易指 등 두벌을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것인데 이 점에서 또한 그의 學問이나 藝術의 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어 舍季 相喜에게 보낸 秋史의 書翰 第4信은 <磊磊落落書>, <明末遺民事>, <七政帖>, <如來帖>, <隨送帖> <藝海珠塵> 등을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내용이고, <中庸說>을 읽고 천고에 나오지 못할 논지임을 깨달았음을 알림과 <唐空帖> 10권중 3권만을 받았음을 알린 書翰 內容이다.

罪通有頂 蒙積如山之無狀累蹤 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淚被面而已 有非語言文字 所得說到者也 况又拙書之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神山 無不震動⁵⁸⁾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5信的 한 代目이다. 流刑囚로서 썼던 拙書가 宸眷을 입게 되어 君恩에 感動하고 있는 內容이다. 그밖에 주로 扇額에 관하여 寫해 주고 있다. 秋史 藝術의 一面을 엿볼 수 있는 內容으로 書信 內容이 一貫하고 있음을 본다. 舍季 相喜에게 보낸 秋史의 書翰中에서 以上の 4통의 書信은 憲宗 11年(1845)의 것으로 秋史의 學問과 藝術의 傾向을 理解하는데 중요한 作品이라 하겠다.

이어 第6信은 舍季 相喜가 孫子를 본 것을 기뻐하고 連袂咸黨間의 安否를 걱정하였다. 第7信

57) 前揭書.

58) 前揭書.

은 骨董品 몇 종류가 秋史 本家에 들어 왔다고 傳해 들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궁금해 한 代目이 있는데 秋史의 古董에 관한 知識의 豊富한 一面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憲宗 12年 (1846) 6月 프랑스 해군 소장 Cecile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의연도에 들어온 情況을 듣고 秋史가 느낀 西洋事情을 피력하고 있다.

第8信은 戊申新年에 秋史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翰인데, 朝廷의 聖孝益光을 빌며, 連袂咸黨間의 安否를 비는 한편, 秋史의 文章道의 一面을 엿볼 수 있는 代目이다.

蓋文字 簡簡爲貴 亦有添長爲貴處 不宜一以刪法 爲定格矣 且有關於音響節奏 非獨於詩律而已 未知如何 更加十分商裁也⁵⁹⁾

이러 秋史와 濟州島民과의 交流의 一面을 보여주는 代目を 엿볼 수 있다.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饋錢雇人 專此上送 以爲輸致之地 其意不可遏住茲以裁書付去. 隨即堅裹以送如何如何⁶⁰⁾

第9信은 放釋의 기쁨과 聖恩에 感謝하며 歸鄉케 된 內容의 書翰이다.

養嗣子 相喜에게 보낸 第1信은 매사에 ‘直道以行’의 家訓으로 생활토록 당부한 內容의 書翰이고, 第2信은 流刑囚로서 夫人의 소상이 지나서 喪服을 벗었지만 그사이 소상과 사당 제삿날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애달파한 內容의 書翰이며, 第3信은 問安과 李時享이란 사람이 學問을 한다기에 秋史 本家로 紹介한 內容의 書翰이다.

庶子 商佑에게 보낸 書信의 內容은 난초를 치는 법 곧 蘭法과 그 三轉의 妙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秋史의 藝術觀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第1信은 問安과 自身의 處地가 ‘形如稿木 心如死灰’와 같다는 心境임을 內容으로 하였고, 第2信은 夫人 禮安李氏의 他界로 인한 自歎을 內容으로 한 書翰이다. ‘積谷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憫’ 그것은 秋史가 뼈를 깎는 듯한 悲痛함이 었다.

申威堂 觀浩에게 보낸 第1信은 病弱한 자신의 處地를 ‘瘴濕爲祟 百病侵尋 眼耳鼻舌 無不作苦 無醫無藥 亦惟任之而已’라 했는데 眼疾은 舍季 相喜에게 보낸 書信 第5信 속에서도 붓을 잡을 수 없을 程度였다고 밝히고 있다.

申威堂이 보낸 詩幅과 隸書, 楷書에 대해 批評해 줄과 ‘古器款識’ 一函三冊을 빌려 준다는

59) 前揭書.

用談과 許小癡의 畫法을 ‘破除東人陋習，鴨水以東 無以作矣’라 칭찬한 내용의 書翰이다.

第2信은 自己 安否와 申威堂이 보낸 隸書를 ‘今以隸字見之 有一超直入底氣像’이라고 評하였고, 詩道에 있어서 淸나라의 朱竹垞로서 기본을 삼고, 王漁洋으로써 참고하도록 한 내용의 書翰이다.

第3信은 秋史가 金石學과 書藝家로서의 大家였다는 面貌를 엿보게 하는 바가 많다.

金石一學 自有一門戶 東人皆不知有此 如近篆隸諸家 但就其原本 謾過一通 而何嘗有 考究於羽翼經史 與分隸同異 偏旁流變者也⁶⁰⁾

秋史를 私塾하는 申威堂에게 스승으로서의 따사한 면모를 엿보여 주는 代目이 있다.

漢隸字原固好…(中略) 顧南原隸辨一書 反有勝於是者, 恨無由一使令一一涓定口證也 行篋甚貧 此等可證者 未得携來 未由遠致 殊爲之咄咄 凡屬在我者 竟當有一皆奉覽矣⁶¹⁾

이어 글씨 쓰는 법에 있어 墨法을 체득해야 함을 말하면서 ‘東人雖行筆 而不知行墨 心眼何以及此耶’라고 評하여 申威堂의 詩句에 評點을 가함과 隸書帖은 秋史 自身보다 나아 기쁘다는 얘기와 한자루로 20年을 써서도 상하지 않았다는 淸愛堂筆을 부쳐 보낸다는 內容이다.

‘淸愛堂筆一枝 又致寄呈…(中略)…鄙作隸楷專用此筆 此一枝用之 二十年不敗 割愛學似非令斷不出 須領此苦心寶用 是祝是祝’이란 代目에서 秋史가 申威堂을 血肉 이상으로 애끼고 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以上 秋史의 流配漢文書翰은 流配文學의 眞面目은 反映하였다는 점에서 漢文學上 그 價値가 드높다고 볼 수 있다.

濟州島는 流配地로서 象徴的인 곳이었고 最惡의 島配地였다. 이 곳에 流配를 당한 政治人, 學者, 선비들은 流配生活을 赤裸裸하게 文學化하여 國文學上의 珠玉같은 貴重한 作品을 남기었다.

本稿에서는 流配歌辭와 流配漢詩 및 流配祭文, 流配時調, 流配漢文隨筆, 流配書翰 등을

60) 前掲書.

61) 前掲書.

中心으로 考察 한바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 濟州流配文學에 나타난 內容은 戀君에의 忠念, 身上歎, 衷訴, 隱遁逃避, 人倫 등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둘째, 꿈을 꺾려다가 黨爭으로 인해 오히려 官府에서 쫓겨 絕海孤島로 流配된 많은 流配人士들은 당시의 濟州地域間的 精神的 文物을 交流시켜 주는데 至大한 역할을 하였음을 斷定할 수 있다.

셋째,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등의 主題는 向主一片丹心과 憂時戀君에의 戀慕와 忠念에 있으며 이는 松江의 思美人曲과의 接脈關係와 思美人歌辭의 系譜를 明示해 주며 流配歌辭의 系統을 暗示해 주었고, 안조환의 萬言詞, 萬言詞答은 君主에 대한 忠誠의 再誓約에 있고 속죄, 회개에 一貫한 自歎哀訴에 있어 國文學上 流配歌辭의 代表作임을 確認할 수 있다.

네째, 金淨의 絕命詩는 自歎을 內容으로 한 漢文學上 朝鮮의 楚辭라 하겠고 光海君의 '在園籬中吟'은 人倫에 哀訴한 身上歎의 詩的 零團氣가 감돌고 있으며 任觀周의 磨崖詩는 隱遁逃避에서 오는 自然愛에의 沒入을 그 內容으로 하였고, 金正喜의 '配所輓妻喪'은 夫人의 訃告를 流配地에서 받은 人間的인 悲痛을 表白하고 있다.

다섯째, 尹塾의 流配祭文은 流配生活, 田園逃避, 黨爭으로 인한 宦海風波, 庶民社會의 人心 등 여러가지 당시 社會의 諸相을 包括한 一大 叙事文學이며 한글로 된 悼亡妻祭文으로서 제문이 갖는 國文學上의 비중이 至大함을 斷定할 수 있다. 金正喜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은 流配地에서 喪妻당한 悲痛한 心情을 表白한 것으로 秋史의 流配文學의 眞面目을 엿보여 준다 하겠다.

여섯째, 宋時烈的 流配時調는 怨恨과 戀君에의 情을 內容으로 했고 柳赫然의 時調는 身上歎이 그 內容이었다.

일곱째, 流配漢文隨筆인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李健의 濟州風土記는 流配地 濟州島의 당시의 狀況과 風土를 紹介한 것으로 1500년대와 1600년대의 濟州島의 狀況과 風土를 비교, 고찰하는데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

여덟째, 秋史의 한글書翰의 발굴은 그가 珠玉같은 한글 文章을 썼다는 점에서 그의 實事求是學은 主体性에 입각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濟州島에서 쓴 流配한글書翰은 流配生活의 眞相, 濟州島의 風俗을 反映하여 준 流配文學의 極致라 하겠으며 國文學上 諺簡文의 비중을 再評價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한편 그의 漢文書翰은 流配文學의 眞面目을 反映하였다는 점에서 漢文學上 그 價値가 드높다고 斷定할 수 있다.

— Summary —

An Introduction to the Exile Literature of Jeju-Do

Yang Soon-pil

Jeju-Do was the symbol of banishment and the worst one of all the exilian places. The politicians and scholars, who were banished to this island, frankly wrote the exilian aspect of their lives and left the rare and important works through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In this paper, Kasa, Chinese poetry, funeral address, Sijo, Chinese essay and letters written during the exilian life are studied. It is expected that a great number of exile works will be dug out and arranged in the near futu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of the Jeju exile literature was, as a whole, about the affection for the kings, the grief of the writers themselves, the retirement from the official world or about the human ethics.

Second, many exiles to a lonely island, because of party strifes, though they were once planned to accomplish their goal, played a great role in exchanging mental civilization between the mainland and Jeju-Do.

Third, the subject of Kim Chun-taek's *Byulsamiinkok* and Lee Jin-you's *Soksamiinkok* is the sincere heart and loyalty for the kings. They are linked with Song Kang's *Samiinkok* and show us the clear genealogy of *Samiin Kasa*,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ure to suggest the lineage of the exile *Kasa*. An Jo-whan's *Manunsa* and *Manunsada* also show the loyalty for the king and they are representative *Kasas* expressing the atonement and repentanc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Fourth, Kim Jung's poetry which expresses his own grief is an excellent work in the Chinese literature of Yi dynasty. the King Kwang-hae's *Jaewyilijungum* contains a poetic mood which appeals to the human ethics for his own grief. The content of Im Kwan-joo's *Ambyuk* poetry is immersed in love of nature from the retirement from the official world. Kim Jung-hee's poetry laments for his wife's death.

Fifth, Youn Suk's banishment funeral address is a great descriptive literature which represents the life of exile, the escape to the rural district, and the social aspects including official and common people's life.

The position of this work is very important in the Korean literature as a funeral address which is written in Korean.

Sixth, Song Si-yeol's exile *Sijo* expresses the affection for the kings and You Jook-yeon's *Sijo* does the grief of the writers themselves.

Seventh, Kim Jung's Jeju *Poongtolok* and Lee Kun's Jeju *Poongtoki*, exile essay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troduce the situations and natural conditions of Jeju-Do. These works will be rare and important references in understanding Jeju-Do from the 16th to the 17th century.

Eighth, the discovery of Kim Jung-hee's Korean letters must be highly estimated in the fact that his works are based on objectivity, that is, his works are good compositions written in Korean. Especially, exile letter writings which he wrote in Jeju-Do are the culmination of the exile literature which reflects the truth of an exilian life and customs of Jeju-Do. His works give opportunities to re-estimate the importance of letter writing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his letter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show us the real aspect of the exilian life and are sure to be of great value throughout the Chinese literature of the Yi dynasty.